

선박 GPS 오작동 주의 당부

속초해경 '저도어장 입어전 대책회의' 개최 ... 월북조업 우려

거진과 속초 등 동해 연안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위성위치 정보시스템(GPS) 오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초해경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정되는 저도어장 입어를 앞두고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들을 대상으로 자체 파악한 결과 지난 11일 현재 거진파출소 5척, 속초파출소 15척, 주문진파출소 53척 등 모두 73척이 GPS 오작동 현상을 보인다고 신고했다.

어선들의 신고내용은 GPS 화면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멈추거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일부는 시간이나 요일 등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

도 포함돼 있다.

속초해경은 "GPS 오작동의 원인은 북한이 개성에 이어 금강산에서도 교란전파를 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항로에 착오를 일으켜 그물 설치 지점을 찾지 못하거나, 월북조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고성군청, 속초어업정보통신국, 고성수협, 대진·거진어촌계, 군부대 등 10개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도어장 입어전 대책회의'를 갖고, GPS 전파 장애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및 어업인 준수사항, 긴급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속초해경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GPS 전파장애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어하는 어선은 가능한 육지를 볼 수 있는 연안에서 조업하고, 안개 등으로 육지를 식별할 수 없을 때는 조업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속초해경서장은 11일 오전 9시 동해안 최북한 항구인 대진항과 가진항 등 각 항포구를 찾아 GPS 오작동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서장은 속초해경 대진파출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에게 어선들의 GPS 오작동으로 인한 위치 혼선으로 월선사례가 발생하지



김용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지난 11일 동해안 최북한 항구인 대진항과 가진항 등 각 항포구를 찾아 GPS 오작동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해상 장기간 중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 치안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저도어장 개

해 해상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피서철 관광객 맞이 준비 착수

고성군 26개 해변 운영시설 개선 현장 조사

고성군은 지역 경기 활성화의 최대 피크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송지호와 화진포 등 26개 해변을 대상으로 해변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이번 현장조사 후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5개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 3월부터 시설 개선 사업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해변 운영시설 개선사업은 기반시설사업, 샤워장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선 지중

화사업, 샤워장 물탱크 설치, 화장실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해변 운영시설 개선사업으로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휴식·휴양공간을 조성해 관광객 수요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토양 중금속 자체분석 가능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중금속 분석 장비 확보

최근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토양검정 및 중금속 분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중금속 분석장비를 확보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그동안 중금속 분석기관이 없어 타 지역의 분석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뢰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월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등 중금속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올해부터 농경지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의 중금속 분석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분석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희망농가 및 토양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분석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줄여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지속적인 농업생산력 유지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검정과 함께 주요 작물 재배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4천여점의 시료를 정밀검정 후 시비처방서를 농업인에게 무료로 발부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맞춤형농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꾸지뽕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개발

금강고성꾸지뽕연구회 창립 ... 초대 회장에 함종성씨

지난 17일 오후 2시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금강고성꾸지뽕연구회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꾸지뽕 사업설명회 및 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금강고성꾸지뽕연구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농·특산물 생산판매에 따른 농·특산물 공동구입 등 공동체활동을 통해 회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창립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토성면 교암리 출신 함종성씨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함종성 초대 회장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좋은 고성꾸지뽕 재



지난 17일 금강고성꾸지뽕 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고성군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함종성 △부회장 함동조 △감사 최봉림 △총무 박현준.

박승근 기자

산불조심